

## 노동부장관,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개정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에 정부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에 따른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상황 점검 및 개정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노사 간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지원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상황 및 지역별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및 수시 실무회의를 통해 지역별 노사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가 촉진되도록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회의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훈	044-202-7496
		담당자	서기관	오지영	044-202-7621
			사무관	배봉관	044-202-7623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강승헌	044-202-7611
		담당자	서기관	정장석	044-202-7615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책임자	과 장	최재윤	044-202-7372
		담당자	사무관	서관범	044-202-7693



**□ 추진 배경**

-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관계 및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상황 등 점검하고 본부-지방관서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6.5.7(목) 14:00~14:40  
서울청 9층 소회의실 - 세종 6층 소회의실 - 7개청 영상
- (참석자) 장관(주재), 노동정책실장, 대변인,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 정책보좌관  
- 서울·경기·충부·부산·대구·광주·대전청장
- (안건) 본부-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  
- (본부) 최근 노사관계 및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상황  
- (지방관서) 관내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시행 상황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 모두말씀	장관
14:05~14:15 (10')	▶ 최근 노사관계 및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추진 현황	노사협력 정책관
14:15~14:35 (20')	▶ 관내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노조법 2·3조 시행 상황 (청별 3분 이내 구두보고) * 서울→경기→충부→부산→대구→광주→대전 順	7개 청장
14:35~14:40 (5')	▶ 본부-지방관서 간 당부 및 건의사항	참석자 전원

\* 장관님 모두말씀까지 공개, 회의 직후 보도 참고자료 배포

반갑습니다. 장관 김영훈입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이름, 모두의 노동절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부 실·국장, 7개 지방청장과 함께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노동부는 새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 아래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의 틀을 구축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뜻깊은 노동절 행사를 양대 노총 및 경총 등 노사정이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한 길로 나아가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아울러,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하여 노조법이 정한 단체교섭 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주신다면,  
노동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및 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지금은 법 시행 초기 법 테두리 내에서  
현장의 교섭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향후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되면서  
교섭 의제의 추가나 구체적인 교섭 내용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장도 나타날 것입니다.

각 지방관서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전담팀을 통해 현장의 교섭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하면서 법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원만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의 시작이자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장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는 교섭과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